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기사 아래 파란색 버튼을 누르시면 기사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 경제]

- Bloomberg: 전문가들 '관세 탓에 6월에 미 인플레 급등' 예상
- WSJ: 이코노미스트들, "경기 침체 줄고 일자리 는다" 예상
- Bloomberg: 클리브랜드 연준 총재 "금리 인하 전에 물가 관망 필요"

[미국 금융]

- CNBC: 관세 수익으로 6월에 예상외로 연방 흑자
- WSJ: 금융 전략가들, "트럼프가 파월 의장 축출할 경우 시장 쇼크" 경고
- WSJ: 달러 약세로 올여름 미 여행객 구매력 감소

[무역전쟁]

- Bloomberg: 한국, 미 반도체 관세 불확실성으로 우려 표명
- Bloomberg: 트럼프 관세로 유럽 등은 관세 대응 협력 추진
- Bloomberg: 트럼프, 일본의 자동차 무역 불균형 비판

[오일]

- Bloomberg: 유가 하락...관세 여파로 러시아 공급 리스크 줄어

[글로벌 경제]

- WSJ: 미-중 무역 휴전 이후 중국 수출 예상치 넘어

[비즈니스와 기업동향]

- Bloomberg: 아마존 프라임 데이, 미 온라인 지출 30.3% 증가에 기여

[보고서]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 금융 시장 정보

[미국 경제]

Bloomberg: US Inflation Expected to Accelerate in June Due to Tariffs

전문가들 '관세 탓에 6월에 미 인플레 급등' 예상

- 이코노미스트들은 관세로 인한 인플레 상승을 오랫동안 경고했는데 향후 소비자 물가지수 결과에 주목된다.
- 연준 관리들과 민간 섹터들의 컨센서스에 따르면 기업체들이 관세에 따른 물가 상승을 소비자들에게 전가할 것으로 보여 올 여름 물가가 상승할 것이라는 것.
- 일부 전문가들은 기업체들이 관세 여파를 막을 옵션이 거의 바닥난 상황이라 올 여름 하반기에 물가 여파가 나타날 것이며 관세가 월간 물가 상승률의 3분의 1을 점유할 것으로 내다봤다.

WSJ 기사

WSJ: Economists See Lower Recession Risk and Stronger Job Growth: WSJ Survey

이코노미스트들, “경기 침체 줄고 일자리 는다” 예상

- 이코노미스트들에 따르면, 3개월 전보다 미국의 성장률과 고용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으로 인한 경기 침체 위험과 인플레이션 우려가 일부 완화된 것이다.
-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부과 유예의 영향이 큰데, 이러한 긍정적 흐름이 지속될지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 이코노미스트들은 4분기에 인플레이션을 반영한 GDP가 전년 대비 1% 성장하고, 2026년에 성장률이 1.9%로 반등할 것으로 예상 중이다. 향후 12개월 동안 경기 침체 가능성은 33%라고 예측했다.
- 또한, 이들은 연말에 금리가 3.94%로 인하될 것으로 예상하는데, 이는 올해 1~2회 정도 금리를 인하할 것임을 시사한다.

WSJ 기사

Bloomberg: Fed's Hammack Supports Wait-and-See Posture on Rates

클리브랜드 연준 총재 “금리 인하 전에 물가 관망 필요”

- 클리프랜드 연준 총재인 Beth Hammack는 “금리 인하를 지지하기 전에 우선 물가 하락을 보기 원한다”고 말해 금리 인하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 연준은 오는 7월 29일부터 양일간 정례 회의에서 또 한 차례 금리 인하를 동결할 것으로 보인다. 2명의 연준 관리자는 회의에서 금리 인하를 지지할 가능성이 높지만, 나머지 관리들은 관세의 물가 여파를 지켜보는 것이 좋다는 신호를 보이고 있다.
- Beth Hammack는 “관세 여파를 보다 확실히 판단할 때까지 기업들이 투자를 중단하거나 줄일 것이라는 말을 듣고 있다”며 “경제는 든든하고 동료들은 관망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말했다.

Bloomberg 기사

[미국 금융]

CNBC: Treasury posts unexpected surplus in June as tariff receipts surge

관세 수익으로 6월에 예상외로 연방 흑자

- 연방 정부가 올해 계속해서 부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5월에 적자가 3천1백60억 불을 보였으나 6월에 예상외로 흑자 2백70억 불을 나타냈다.
- 통관 관세가 5월에 2백30억 불에서 2백70억 불로 증가했는데 작년 6월에 비해 301% 증가했다.
- 한편, 36조 달러에 대한 순이자율은 6월에 8백40억 불을 기록해 5월보다 약간 줄었지만, 소셜 시큐리티 지출을 제외하고는 가장 큰 지출 항목이다.

CNBC 기사

WSJ: Trump Ouster of Fed Chair Powell Could Trigger a Market Shock, Strategist Warns

금융전략가들, “트럼프가 파월 의장 축출할 경우 시장 쇼크” 경고

- Deutsche Bank 전략가에 따르면 트럼프가 파월 의장을 축출할 경우 시장의 가장 커다란 리스크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 외한 글로벌 책임자인 George Saravelos는 파월 의장이 해고된 후 24시간 이내에 시장은 큰 혼란을 겪을 것이라고 말했다.
- 달러는 3%~4% 하락하고 국채는 0.3%에서 0.4% 상승하는 매도세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WSJ 기사

WSJ: Plunging Dollar Leaves American Travelers With Less Buying Power This Summer

달러 약세로 올여름 미 여행객 구매력 감소

- 달러 인덱스는 올 상반기에 50년 만에 최악의 성적을 보이면서 유로와 엔화에 비해 떨어지고 있다.
- 달러 약세로 인해 미 여행객들의 해외 구매력이 떨어지고 있는데 그러나 많은 미국인은 올여름에 여전히 해외 여행을 하고 있다.
- 달러 약세는 다국적 기업의 어닝을 올리고 미국 투자자들에게는 해외 주식이 더 매력적으로 보이도록 하고 있다.

WSJ 기사

[무역 전쟁]

Bloomberg: South Korea Flags Concerns Over US Chip Levy Uncertainties

한국, 미 반도체 관세 불확실성으로 우려 표명

- 여한구 한국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이 반도체에 대해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 때문에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 그는 8월 1일부터 부과되는 일괄적인 관세를 최소화하기 위해 긴급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 그는 안정된 무역 조건을 만들기 위해 종합적인 패키지 딜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Bloomberg 기사

Bloomberg: Trump's Tariffs Push Economies to Broaden Trade Ties

트럼프 관세로 유럽 등은 관세 대응 협력 추진

- 유럽연합 통상 교섭 책임자인 Maros Sefcovic는 트럼프의 관세 조치로 새로운 위기감이 일어나고 있다고 밝힌 가운데 유럽연합은 트럼프에 의해 타격을 받은 국가들과의 연대 확대를 준비하고 있다.
-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유럽연합은 캐나다와 일본 등의 국가들과 협력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은 캐나다 수상과 면담할 예정이다.
- 오스트리아 무역부 장관은 “공동으로 미국을 향하는 압박을 강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Bloomberg 기사

Bloomberg: Trump Criticizes Japanese Cars Again Ahead of Bessent Visit

트럼프, 일본의 자동차 무역 불균형 비판

- 트럼프는 미국과 일본의 자동차 무역 거래의 불균형을 비판했다. 그는 “일본은 매년 미국에 수백만 대의 차량을 판매하는데 미국은 제대로 팔지 못하고 있다. 일본이 미국 차를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 이에 대해 일본 수상은 “미국 차는 좌측 운전대에도 차량이 크고, 연료가 비효율적이라 일본에서 팔리기 힘들다”고 대응했다.

Bloomberg 기사

[오일]

Bloomberg: Oil Drops as Tariff Fallout Overshadows Risks to Russian Supply

유가 하락...관세 여파로 러시아 공급 리스크 줄어

- 계속되는 미 관세 위협으로 러시아의 에너지 수출을 억제하려는 미국의 노력이 묻히면서 유가가 하락세를 보였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1.8%까지 상승한 후, 소폭 하락해 배럴당 68달러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다.
- 트럼프 대통령이 EU와 멕시코산 제품에 30% 관세를 부과하겠다 위협하면서, 투자자들의 에너지 수요 전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 해결을 위한 “중대 성명”을 발표할 것이라 했는데, 미국의 제재 정책에 대한 업데이트가 포함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요일, 미국이 키이우에 더 많은 무기를 지원할 것이라고 말하며 러시아에 대해 공격적인 입장을 보인 바 있다.
- 한편, OPEC+은 공급 감축을 완화하고 있으며, 이는 하반기 공급 과잉으로 이어질 수 있다. 올해 유가는 여전히 5%가량 하락한 상태이다.

Bloomberg 기사

[글로벌 경제]

WSJ: China's Exports Beat Expectations After Trade Truce With U.S.

미-중 무역 휴전 이후 중국 수출 예상치 넘어서

- 중국의 6월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5.8% 증가했다. 이는 이코노미스트들의 예상치를 뛰어넘는다.
- 미국과 중국의 무역 긴장이 완화되면서 중국의 대미 수출 감소율이 16.1%로 많이 줄어들었지만, 이코노미스트들은 이러한 하락세는 일시적 개선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며 정상화로 해석해서는 안된다고 경고했다.
- 올해 상반기에 미국으로의 중국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0.9% 감소했지만, 모든 국가로의 중국 수출은 5.9% 증가했다. 특히, 동남아시아 국가에 대한 수출은 13% 증가했다.
- 그 결과 중국의 6월 무역 흑자는 1,147억 8,000만 달러로, 이코노미스트들이 예상한 1,113억 달러보다 증가했다.

WSJ 기사

[비즈니스와 기업동향]

Bloomberg: Amazon Prime Day Fuels 30.3% Rise In US Online Spending 아마존 프라임 데이, 미 온라인 지출 30.3% 증가에 기여

- Adobe Inc.에 따르면 아마존의 프라임 데이 세일이 미국 내 소매업체 온라인 지출을 30.3% 늘려 현재는 241억 달러를 달성했다.
- 많은 쇼핑객이 고가 전자제품이나 사치품에 돈을 쓰는 대신, 주방세제나 종이 접시 등 생활필수품을 구매했다. 가구당 평균 지출액은 156달러였으며, 구매한 품목 중 3분의 2는 20달러 미만이었다.
- 아마존은 Alexa 플랫폼 기반 음성 인식기, Ring 도어벨 등 자사 브랜드 기기 수백만 대를 판매했다고 밝혔다.

Bloomberg 기사

[보고서]

트럼프에 뒤통수 맞은 EU 실망·당혹...협상전략 재정비

8 월 1 일부터 30% 관세 예고...무역수장 "합의 근접했었는데..."
보복조치 준비 병행하되 '로키'...佛은 강경수단 활용 촉구

내달 1 일부터 30%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예고를 받은 유럽연합(EU)이 협상 전략을 재정비하고 있다.

EU 27 개국은 14 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외교이사회 통상 부문 회의에서 대미 협상을 이끄는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무역·경제안보 집행위원에게 협상 진행 상황을 공유받고 향후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율 통보 서한 발표 이틀 만에 열린 이날 장관급 회의에서는 당혹과 실망이 역력했다.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 참조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

KOCHAM | 460 Park Ave. Suite 410 | New York, NY 10022 US

[Unsubscribe](#) | [Constant Contact Data Notice](#)